

5·18 희생자 유전자 시료 채취한다

조사위, 오늘 5·18묘지서 STR·SNP 기법 병행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는 게 최소한 예의·책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국립 5·18묘지에서 1980년 5월 당시 희생자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분묘개장 및 유전자검사 시료채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위는 작권조사에 의한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의 희생

자와 5·18 행방불명 피해 인정 가족이 포함된 광주 5·18 관련 행방불명자 가족 찾기 혈액채취 신청자의 유전자형을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 중인 5기의 희생자 골편 중 그간 DNA 검사로 소진된 3기에 대해 개장을 추가 실시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적격성과 적합성

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및 전남대학교 법의학교실의 검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범죄수사에 널리 사용되는 DNA의 염기서열 반복구간 비교, 일치·불일치를 가려내는 STR(Short Tandem Repeat) 기법과 STR 기법보다 많은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고도로 훼손된 인체 시료분석에서 STR 검사보다 유용성이 높은 SNP 기법을 병행, 상호 보완을 통한 높은 확인율이 기대된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시

주관으로 최초 매장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1위를 대상으로 전남대 법의학교실(박종태 교수팀)에서 시행, 무명열사 6위의 신원을 확인했다.

안중철 조사위 부위원장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5·18 무명열사로 누워 계신 분들은 물론 향후 암매장 발굴 및 유해 수습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 40년간 기다려온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조사위가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책무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시·도 상습 체납자 공개 1,695명·860억원

광주와 전남도는 18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95명(법인 포함)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 80개(38억원), 개인 129명(47억원) 등 20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85억원이었다.

지방 행정제도·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4개(1억1,000만원), 개인 19명(8억7,000만원) 등으로 23명이 9억8,0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별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2억2,800만원, 법인에서는 12억1,800만원이었다.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463명에 체납액은 775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995명·386억원이며, 법인은 468·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 대상자는 249명에 90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8억원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에 소재한 건축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A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도·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명단은 시·도 홈페이지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R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애란·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0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에서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보다 더 신뢰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공사·출연기관 도민행복 성과물 내야”

김 지사, 성과보고회서 도민 신뢰 근본대책 주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2020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를 갖고,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과 성과물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7개 공사·출연기관이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성과로는 ▲전남개발공사 ‘신안

해상풍력 1단계 건설사업 참여’ ▲광주 전남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기획연구’ ▲전남TP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플랫폼 R&D 65억 원 및 규제자유특구 65억 원 수주’ ▲중소기업진흥원 ‘육성 자금 추천 및 101억 원 이자 완화’ ▲신용보증재단 ‘코로나피해 극복 총력 지원’ ▲순천·강진 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타 지역병상 나눔’ 등이다.

김 지사는 “공사·출연기관 경영평가

가 기관 성과 전부를 대변할 순 없지만, 산하 공공기관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화와 성과달성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은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히트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도민의 공감을 얻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자”고 덧붙였다.

/길용현 기자

광주문화재단 대표 내달 7일 인사청문 시의회, 특위 가동...11일 보고서 채택

광주시가 황봉년 ‘전라도 닷컴’ 발행인 겸 편집장을 제4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한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광주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린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내달 7일 황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11일 본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로 제명된 나현 의원을 대신한 인사청문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인사특위는 황현택 위원장과 조석호·김나윤·김학실·임미란·장재성·정무창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황현택 인사특위 위원장은 “광주문화재단의 인력이 100여명, 예산 300억원 규모로 상당히 큰 조직이다”며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봉년 내정자는 순천고, 고려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일보 기자, 광주드림 편집국장, 아시아문화원 비상임 이사 등을 지냈다.

문화재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역량있는 전문가 영입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전국단위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황애란 기자

‘2040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포럼

19·24일 광주도시공사서...현황진단·사례발표

광주시는 19일 오후 1시와 오는 24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광주 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포럼은 광주 도시 각 부분별 현황 진단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 2차 포럼은 서울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2040 서울 플랜 수립과정상 핵심 쟁점,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과정을 발표한다.

19일 주제발표는 나주몽 교수가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대해, 24일에는 김인희 박사가 2040 서울플랜의 핵심 이슈 등을 설명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19일 이종화 교수(목포대), 24일 조순철 교수(동신대)를 좌장으로 여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사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 지회장을 맡고 있는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구감소 등 도시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 대응과 현안 이슈 해결방안을 담게 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광주 등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계절관리 전 기간(2020년12월~2021년 3월) 운행이 제한돼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단속 제외대상은 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광주시 기후 대기과 전화(062-613-4320~4)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상무 수(秀)치과 김수관 원장

‘익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세계적 명의, 대한민국 Top Class, 대한민국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김수관 원장’

보건복지부 인증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상무 수(秀)치과의원 치의학박사 김수관 원장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3대 인명사전(미국, 유럽)에 등재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학분야 논문평가기관인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익스퍼트스케이프 (Expertscape)’ 에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 타지역 부분에서 임플란트 수술 전문가로 1위를 차지하며, 빛고를 광주에 임플란트 전문 수술 권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xpertscape는 세계에 발표된 치의학 관련한 연구 논문을 데이터뱅크화하여 치의학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하여 연구자의 세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무 수(秀)치과의 10가지 장점!

- 1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플란트 등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
- 2 3,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진료 건수와 5,000건 이상의 발치 건수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치과
- 3 세계 3대 인명사전 최연소 등재 및 17년간 모두 등재한 치과의사
- 4 대학병원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5개 전국 규모 학회장 역임한 최연소 치과의사
- 5 치과분야 103건의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출원중인 치과의사
- 6 치과에 관한 책을 100여권 발간한 치과의사
- 7 신문과 방송에 200여회 출연하는 등 30여년 동안 임상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결과를 보여준 치과의사
- 8 200여회 특강을 하는 등 많은 치과의사와 후배를 가르치는 치과의사
- 9 항상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치료계획 수립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분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
- 10 오랜 기간동안 기부(10억여원)와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치과

상무수치과의원

상무역 1번 출구 DY빌딩 2층

Tel. 062-371-4028

평 일 오전 9:00~오후 6:30

야간진료 화요일 (오후 8:30까지)

토 요 일 오전 9:00~오후 1:30